
2020년 제38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9. 11. ~ 9. 1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9. 11.	시청률	0.057

【총 평】

‘단박톡’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우리가 지킨다! 북한 주민 단속하는 규찰대와 북한의 변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난으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북마크TV’에서는 “식량난 해결 위해 강조하는 북한의 수산물 가공 산업?!”을 방송했으며, 북한의 최대 젓갈특구인 서해 금산포의 젓갈 공정 과정과 유통 과정, 북한이 수산업을 강조하는 이유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북한 용모단속법을 비롯해 북한의 ‘백공구그루빠(109Group)’, 뇌물 따라 달라지는 규찰대 단속법, 북한의 금지패션, 북한의 모범 패션 스타일, 경제난으로 규찰대 단속 강화, 코로나19 방역 위해 교원규찰대 새로 출범, 장마당 세대가 북한에 바라는 점과 한반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구성 및 내용】

단박톡은 북한 주민들의 자본주의 문화와 단속법에 대해 살펴보고, 인싸그램으로 보는 올 가을 유행 패션과 북한에서 수용여부를 알아봤다. 북마크TV는 북한의 수산 가공 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젓갈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공개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북한 주민들의 자본주의 문화에 젖어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아직까지도 용모관리에 대한 개인적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고 단속반이라고 불리는 규찰대의 활동은 강압적이고 잔혹하게 용모단속을 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헤어, 용모에 대한 실상과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백공구그루빠(109Group)’의 활동 상황, 북한에서 입어도 되는 옷과 입으면 안되는 옷, 쫄대 바지, 북한의 청바지, 교원 규찰대까지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또한, 규찰대의 위상과 단속법에 대해 설명한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에나 듣던 이야기로 아주 흥미로웠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혹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재미를 더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등교시 학생들의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하는 모습은 우리와 비슷했고,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마스크 단속에 관한 부분도 흥미로웠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공감 가는 내용이었다.

북마크TV는 북한의 젓갈 공장을 소개했다. 황해남도 금산포 젓갈공장에서 덕대를 말리는 풍경부터 출항과 만선의 과정, 젓갈 담는 전 과정이 공개되어 볼거리가 많았다. 평양 모란봉에서는 다른 수산물과 함께 건뎡이, 풋고추 멸치젓 등의 다양하고 독특한 수산품을 소개하여 맛과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그중에서 풋고추 멸치젓은 고추를 넣은 멸치젓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밥도둑이다. 북한이 이렇게 1차 산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9. 11.	시청률	0.000

【총 평】

‘경제,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위기의 장기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한국의 상황과 대응, 그리고 자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다. 특히 세계경제현황,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과제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그린 뉴딜 선발국가인 유럽으로부터 벤치마킹할 점을 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밖에 경제의 흐름과 함께 정책적 배경, 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설득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한국의 상황과 대응, 그리고 자세 등을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으로 적절한 기획이었다.

‘코로나19 세계 경제 현황’에서는 코로나19가 유럽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 올해 세계경제 및 국제기구들이 보는 한국 경제 전망을 알려주었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 인구당 사망자는 우리나라의 50~100배 정도, 확진자도 10~50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 경제성장률이 -5.1% 수준이었다.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과 탈중국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를 소개해주었다. 세계화의 50% 이상은 중국이 차지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에서 3D, 즉 고립주의, 동조화,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적 기조가 변화하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 중국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이에 중국은 자력갱생을 외치며 독립노선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체질변화,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추진과 그린뉴딜 추진에 대한 우리사회의 준비를 제시했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이제 시작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그린뉴딜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특히 친환경재 개발이 중요한데, 자연을 떠돌아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과제’에서는 K-FTA 전략과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유의점을 전해주었다. 1기는 한-칠레 FTA로 시작되었고 2기는 한미, 한EU, 3기는 주변국과의 다자간 FTA로 보고 있다. FTA와 ODA(공적개발원조)의 동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K-FTA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9. 12.	시청률	0.001

【총 평】

‘삶의 소리, 정선 아리랑’은 이상현 캘리그래피 작가와 함께 강원도 정선의 멋과 주민들의 지나온 삶을 담아냈다. 특히,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 김남기 선생은 평창올림픽에 출연하여 정선아리랑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다. 그를 통해 정선아리랑의 가사 의미와 정선아리랑의 탄생, 수 만 가지 가사로 채록된 정선아리랑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의 궤적을 담아내어 프로그램을 한층 빛냈다.

특히, 동강에서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삶에는 첩첩산중 강원도 정선이 있음을, 정선아리랑의 애끓음과 쓸쓸함을 잘 표현해냈다. 삶이 되고 역사가 되고 예술이 된 소리, 정선 아리랑에는 다양한 정서가 담겨있었고, 정선의 역사를 읽은 듯 매우 감동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정선의 풍경과 정선 아리랑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동강을 둘러보며 정선에 도착해 밭일하는 동네 아낙과 뱃사공에게 정선 아리랑 한 수를 청해 듣고 그 시절 아리랑에 얹힌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동네 아낙과 뱃사공이 정선 아리랑을 멋들어지게 불러내어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무형 문화재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정선에서는 누구나 소리꾼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선의 아리랑은 역사가 깊음을 잘 보여주었다. 9살 때부터 소리를 했다는 최종옥 선생부터 뱃사공, 그리고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 소리꾼 김남기 선생과 정선의 토속 민요인 ‘정선아리랑’과 ‘오페라’를 접목시킨 크로스오버 장르인 아페라로 이어지는 정선아리랑은 배고픔과 가난을 이야기했고, 계절에 순응해 온 농부들의 소박한 살림과 덧입혀진 세월의 흔적들을 영상에 잘 담아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풍경을 내는 정선아리랑의 진한 맛을 영상에 고스란히 녹여내어 애잔함과 위로를 보여주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김남기 선생의 집을 찾아가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그 속에서 한 번 더 정선 아리랑을 선보이며 세월 속에 녹아 있는 소리의 흔적을 찾아냈다. 특히, 부부의 농가 자택의 모습 그 자체가 고풍스러운 아우라를 뿜어내며 빼어난 영상미를 제공하였다. 나무에 걸린 호미들의 모습, 뒷마당 장독대의 윤기 흐르는 모습들이 정선 사람들의 삶의 소리로 전해져 왔다. 김남기 선생의 생활 모습에서 정선 아리랑이 어떻게 불리어지고 어떻게 삶의 소리를 담아 전해지는지 정선아리랑의 발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정선 출신 두 공연자가 펼치는 아페라 무대를 소개하고 이들이 느끼는 아리랑의 의미를 들어봤다.

정선아리랑은 해가 질 때까지 일해야 하는 농부들에게 혼자서 산속에서 일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저쪽 먼 산에서도 정선아리랑 노랫소리로 화답하면서 서로가 같이 아직까지 일하고 있음을 의지하면서 발달된 삶의 소리였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9. 12.	시청률	0.022

【총 평】

‘그해 여름, 침묵의 증언자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은 보도연맹 관련자라는 명목으로 1950년 7월 군경에 의해 주민 1800여 명이 집단 학살당한 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가 전시라 해도 주민들을 적법절차도 없이 무자비하게 살해한 역사적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아픈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기획성이 돋보였다.

유족의 증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의 증언, 집단 학살현장 탐방을 통해 차가운 동굴에 은폐됐던 참혹한 진실이 폭로돼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는 구성이 몰입도를 높였다. 유족들과 진실·화해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진실이 밝혀지고 화해의 실마리가 조성된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살렸다.

【구성 및 내용】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대규모로 학살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의 진실, 그리고 현장과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제 치하에선 강제노역과 수탈의 희생자로 해방이 되어서는 이념 갈등에 의해 동족의 손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경산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 현대사의 아픈 단면으로 묘사했는데 가슴에 와 닿았다.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찰 및 군부대가 대구경북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상당수를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폐광된 후 2007년 공개되었을 때 유해들이 상당수 드러났다. 1949년 이승만 정부는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만들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전세가 불리하게 이르자 국민보도연맹원을 북에 협조할 좌익사상자들로 생각해 학살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희생자를 분석하니 일부 좌익사범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좌익사상자들과 무관한 농민들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주변에서는 빨갱이 가족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왔다. 그나마 진실·화해위의 조사과정에서 억울하게 돌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 정부에 묻혀있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3년간에 걸친 유해발굴 끝에 군경에 의한 집단학살로 판명되고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으로 국가사과, 위령비 조성, 추모의 집에 희생자 유골 안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진실 그리고 화해’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추모의 집에 안치된 희생자 유골안치 화면에 “명복을 빕니다”는 자막을 넣은 부분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고, 90대 유족의 눈물짓는 모습을 보여준 마무리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세종시에 위치한 추모의 집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해 580여구는 지난해 추모의 집에 안치되었다. 유족들은 유골이 비록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으나 이렇게 발굴되고 안치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말한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9. 13.	시청률	0.013

【총 평】

‘코로나19 상황, 비대면 피싱 범죄 주의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사회적 혼란을 틈탄 코로나19 관련 악성 사이버 범죄를 살펴보았다. 최근의 가짜 뉴스를 발 빠르게 잘 다루었고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확산시키는 심리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 시선을 끌었다. 또, 새롭게 양산되고 있는 피싱 범죄의 실제 사례를 자료로 준비해서 더욱 관심을 모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가짜뉴스의 확대재생산을 다루어 공감대를 형성했고, 가짜뉴스의 피해 범위와 법적 처벌 등을 정리해주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사회의 불안감과 혼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와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 범죄피해 대처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어 피해 예방 효과를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일상이 바뀌고 비대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금,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경제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많은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로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를 빙자한 많은 가짜뉴스가 발생되고 있음을 전해 공감대를 얻었고,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피싱주의보를 강조하였다. 피싱의 각종 종류와 피해 사례를 통해 피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또, 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트 링크와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 권유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요구됨을 알려주었다. 이와 함께 피싱 범죄에 관해 종류별, 내용별 사례를 들어 소개했고, 피싱 범죄의 개념과 보이스 피싱, 메시지 피싱, 메일 피싱 등 각 피싱의 종류와 문자 내용을 소개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를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 사례와 이러한 심리를 파악하고 법적인 처벌 근거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범죄인 피싱 범죄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알아보았고 대출과 관련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를 전화로 연결해 구제법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된 사건들을 소개하며, 법적 처벌 근거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범죄 유형과 피해사례,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 등을 인터뷰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특히,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각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112와 118로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되었을 때는 118로 바로 폐기신고를 해야 하며,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접속해 조회할 것 등 알찬 정보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업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9. 13.	시청률	0.008

【총 평】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급부상하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를 소개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반려동물과의 삶을 더 행복하게’는 반려견들의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반려견 훈련사에 대한 소개부터 취업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반려견 훈련사는 위탁교육부터 보호자 교육, 그리고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를 개선시키는 일 등을 하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가 어떤 직종이고 합격이후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를 영상구성으로 보여줘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코로나19와 취업난이 겹친 상황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공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기획의도를 충분히 살렸다. 또, 채팅방을 통해 시청자들의 댓글을 보여주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구성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면에서 긍정적 효과이다.

【구성 및 내용】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올해 기준 5조원 이상이 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려동물 훈련사에 대한 수요 및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 훈련사’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좋은 소재였고, 반려견 훈련사 직종이 어떤 분야이고 합격이후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를 취업준비생들에게 알려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반려견 훈련사 선배의 하루 일과’를 담은 <달려라 신입사원>은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고, 훈련사가 출연해 자신의 일상도 소개하고 취업을 위한 필요한 조건 등을 알려주었다. 또, 반려견 업체 대표가 학력이나 전공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인성이라고 했는데 동물과 함께 하는 일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좋은 정보가 되었다. 특히, 잘 짜인 질문과 자연스러운 답변으로 이뤄진 화상모의면접은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고 참여한 지원자의 진지한 모습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반려견 훈련사’는 아침을 반려견 산책으로 시작하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한다. 이후 반려견의 관리부터 사진촬영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사진촬영은 보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산책 후에는 털관리, 목욕 등 반려견에 대한 맞춤관리가 이어진다. 견종마다 피부, 그리고 상태에 맞게 관리가 이뤄진다. 반려견 훈련 전 견주가 기록해 준 반려견의 특성 등에 대해 파악한다.

‘반려견 훈련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미칠 만큼 사랑해야 한다. 하루 종일 반려견 관리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반려견을 사랑해야 견딜 수 있다. 또, 실전과 이론을 겸비해야 하는데 반려견과 사람은 사용언어가 달라 소통이 쉽지 않다. 이론적인 공부는 물론 현장을 충분히 경험해야 한다. 이 밖에 체력을 길러야 한다. 움직임이 많은 반려견을 위해 훈련사 또한 같이 땀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9. 15.	시청률	0.000

【총 평】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국가별, 사회별, 개인생활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하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변화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화두가 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달라지는 미래와 생존전략’은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가 오고 디지털 생태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적응해야 하는지 경제 실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기획이 돋보였다.

S&News는 코로나19와 관련 트윈데믹 경고와 함께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손소독제의 화재위험을 알린 부분이 유익했다. ‘비대면’ 추석 캠페인과 함께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안내한 점이 눈에 띄었다.

【구성 및 내용】

‘포스트 코로나 달라지는 미래와 생존전략은?’이라는 부제로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생활방식과 경제상황, 그리고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세계 경제 현황과 향후 전망,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시대 변화와 그에 따른 생활양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산업과 이런 디지털 생태계 전환을 위한 대응, 포스트 코로나 필요한 새로운 인재상, 기타 유망 기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 경제현황과 전망, 코로나19이후 시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상황과 미래를 촘촘히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 주요국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한국경제 경제성장률의 낙폭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작은 편이고 3분기는 ‘비교우위’라고 평가한 점이 희망적이다.

디지털 생태계 전환을 위한 대응책을 점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부 추진과제와 연결시켜 설명했다. 언택트 경제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는 보다 강화될 것이며, 이런 변화 속에서 개방성, 신뢰, 수평적인 관계 등 삶의 방식이나 경제 활동 방식 등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지칭하는 공감형 인간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술과 자신이 가진 기술을 연결시키는 소통, 소통을 통한 협력 등이 요구된다.

포스트코로나 유망기술은 보다 진화된 헬스케어,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스마트 모빌리티 및 자율 주행으로 대변되는 교통, 물류, 제조, 환경, 문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이에 파생되는 또다른 기술도 유망할 것이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9. 15.	시청률	0.000

【총 평】

국민리포트 제1391회는 '가을 정서'와 '이색'을 담아냈다.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였지만 잔잔하면서 흥미로움을 전달했다. 특히, 소통하는 청각장애인 운전 택시 '호응'은 일부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운영 중인 청각장애인 운전 택시를 다뤄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고, 사라진 옛 풍경...60여 년 전 학창 시절 그림은 아날로그적 정서와 가족의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9월의 사서추천도서는 꿈을 엿볼 수 있는 도서, 자연 과학 분야 도서, 문학, 인문과학 부문 등 추천도서까지 다양하면서도 균형 있게 선별하여 색다르고 흥미로웠다.

【구성 및 내용】

■ 소통하는 청각장애인 운전 택시 '호응'

청각 장애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고요한 M 택시를 소개했다. 특히, 여러 명이 직접 택시에 탑승하게 해보고 직접 느낀 점 위주로 소개한 차별화되었다. 청각장애인 운전자 지원 서비스는 통신사와 사회적 기업이 개발한 운송 서비스로써 IT를 활용하여 승객과 문제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점을 지니고 있다.

■ 요리 교실과 공연으로...호주에 한식 알려요

아시아계 호주인 5인이 요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뿌리와 삶에 대해 공연하는 모습과 한국인 요리강사 헤더 정의 김장김치 쇼와 관객 반응, 요리교실을 소개했다. '더블 더블 딜리셔스' 공연과 한식의 현지화에 성공한 헤더 정을 소개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도 느끼게 해주었다.

■ 사라진 옛 풍경...60여 년 전 학창 시절 그림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백의 청소년기 그림 전시회 현장을 방문하고 작품을 소개했다. 60년 전 중학생 시절에 그려낸 수채화 작품 발표회로 화가의 청소년기 정서를 잘 보여주었고,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림을 보관해 온 가족들의 정성이 느껴졌다.

■ 9월의 사서추천도서...책으로 미래를 계획해보세요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 추천한 9월의 도서와 저자들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5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콘텐츠가 전부다, 코로나시대, 식품 미신과 과학의 투쟁, 작은 동네, 어두운 숲, 소설처럼 아름다운 클래식 이야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등 국내외 도서 여덟 권을 소개하였다.

■ 명절 연휴,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시나요?

코로나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마저 변하게 만들어 버렸다. 집에 오지 말라고 부탁하는 전남 고흥의 한마을을 소개하고 가족간의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진행자의 모습이 코로나로 변해 버린 세태를 반영하는 듯했다.